

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9-13

요절 6:10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여러 나라에서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중 어떤 분들은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오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키예프에서 로마까지, 다시 로마에서 시카고까지 비행기를 타고 온 후, 시카고부터는 차로 왔습니다. 하지만 저보다도 더 먼 곳에서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모두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번 국제수양회 주제는 “하나님나라” 입니다. 여기서 “하나님나라”는 “God’s Kingdom”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The Kingdom of God” 때문에 여기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God’s kingdom”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이 지구위 어떤 곳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 표를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일종의 꿈 또는 철학적인 개념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나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배우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축복된 하나님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단락은 “주기도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여섯개의 기도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르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절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 하나님!” “제발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빛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평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주셨습니다.(요 1:12)

제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좋은 아버지를 갖지는 못합니다. 때로 육신의 아버지는 무관심하고, 부주의하고, 냉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벽하십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돌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그분께 오도록 부르십니다. 자유롭게. 어느때든. 어떤 요청이나 필요든. 우리의 찬양과 눈물과 함께.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바꿔게 합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와 대화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모르기도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기도가 때론 전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항상 함께계시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단락에서 언급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단지 아버지가 아니라 왕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순종해야 할 우주의 왕. 대개, 왕이라는 단어는 대개 부정적인 의미를 갖게 합니다. 그것은 세상 왕들이 잔인하고, 악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왕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분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나라를 주십니다. 이 하나님나라는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언젠가 주님이 그의 권세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완벽히 때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왕은 영광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9 절은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문에 따르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는 뜻은 “holy something” 또는 “sanctify something” 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 단어를 적용할 때 어떤 뜻이 있습니까? 그분이 이미 전 우주를 통틀어 가장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종종 헛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종종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합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장차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성도들과 천사들이 연합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새 노래를 부를 때가 올 것입니다.

10 절을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의 대리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아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모든 것이 풍성한 가든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모든 것이 깨어졌습니다. 이 세상은 살기에 끔찍한 곳이 되었습니다. 관계성이 깨지고, 폭력과 질병과 슬픔, 그리고 고통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전쟁에 있습니다. 다치고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매일같이 전해듣고 있습니다. 완전히 피폐해지고, 재산을 잃거나 아들이나 남편, 또는 아버지를 잃은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시절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아이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 저는 볼꽃놀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동부 우크라이나 출신 아이들이 새해맞이 축제기간동안 볼꽃놀이 소리를 들을 때, 숨을 곳을 찾습니다. 그들은 폭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전쟁이 없을지라도, 우리 각자는 다양한 고통과 아픔에 직면해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더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 모두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나라를 절실하게 찾는 이유입니다--세상의 구원과 치유를 위해.

사람들은 자신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해 질 수 있다고 종종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들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외롭고 굶주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우리는 방탕 한 아들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원과 보호에서 멀어지고, 사탄의 통치 아래서 살며 그의 악한 뜻을 행하며 사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과 어둠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그분께 데려 오기 위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망가져 버린 것과 같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회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하면 그의 나라가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는 내 삶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위대한 과학자나 돈 많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그런 많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통제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여기 저기를 방황하였습니다. 저는 기타를 치며 술 마시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시간만 낭비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저는 화장실 바닥에서 잠을 잤습니다. 저는 거의 대학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성경을 공부하도록 초대 받았으며 그것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후 3:17 말씀이 제 마음을 감동 시켰습니다. 그것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저는 그 자유를 열망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제 삶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최악된 소욕과 사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받는 가정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시고, 키예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처럼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다스리시면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이상 길을 잃거나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라도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뜻은 선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그의 지팡이는 강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 가족 및 교회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11-13 절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의 기도는 단순한 개인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를 위한기도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용서해주옵소서"라고 하신 이유 입니다. 이 공동체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두 세 사람들 일 수도 있습니다 (마 18:20). 그러나 이것은 크기에 관계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공동체의 중심에 있고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큰 가족 그리고 그의 집안의 한 부분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가족은 매우 귀합니다. 저의 동생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Ruth 선교사는 "안녕하세요, 디마 형제"라고 인사했습니다. "형제"라는 작은 말에 제 동생은 큰 감동을 받고, 키예프로 이사하고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고자 가능한 모든 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 기도가 되면 않 됨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기도하고나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얻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위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그것은 단지 나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과 즐겁게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 할 수있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 중 하나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성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를 용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판단함과, 원한, 불평을 퍼뜨립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자유롭게 실천하면 용서를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당신을 해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도해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합니다. 우리의 죄의 빛은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피로 우리의 그 큰 죄 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마음 속에 용서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화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왕은 그의 백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호를 받기 위해 아버지와 왕께 나아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강하고 센 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구해야합니다. 이제 이 수양회 동안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이제 주님의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요 그의 왕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요 그분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기도하고 행동해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왕권을 존중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용서 및 보호를 위해 기도해야합니다. 당신의 기도와, 삶과 사역이 주님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십니까? 이번 대회에서 메시지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속에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족과 사역과 모든 나라에 임하여, 그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같이 이 땅에도 이뤄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Listen to English Message**

<http://hiskingdom2018.org/about-us-basic/accordions-2-2/speakers/>